

2003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해설

2003년도 매우 힘들게 보내야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구성원들간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된 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한 해 내내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보내야 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각종 사건 사고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속에서 우리 도서관계도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냈다. 본지는 2003년을 보내면서 올 해에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우선은 모두 21건의 후보 뉴스를 정리하여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최종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우선 이번엔 선정된 10대 뉴스 가운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2002년에 이은 !느낌표 현상이다. 작년에도 선정된 바 있는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는 올 해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전격 추진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의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다. 어린이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기는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도서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기적의 도서관>은 올 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우리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올 해에는 다양한 독서운동이 전개되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우선은 우리 협회가 서산시립도서관과 함께 추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지역단위 독서운동 또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도서관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 10대 뉴스에 선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밖에 '북스타트'라는 영유아 대상 독서운동도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독서운동은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운동 모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운동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저작권법 개정과 그로 인한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입도 주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제도는 우리 도서관계가 디지털 시대를 헤쳐가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합리적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협회가 올 해 수 년 간의 연구와 검토 끝에 발표한 『한국목록규칙 제4판』과 『한국도서관기준 2003년판』발행도 올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요한 뉴스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십진분류법과 함께 이 모두가 우리 도서관계의 핵심적인 전문적 도구이자 기반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컸는데, 올 해 드디어 모두 개정판을 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계 내부적인 경사로 해방 정국에서 사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故 박봉석 선생이 올 해 은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으셨다. 이 일은 우리 도서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영역에서 제대로 인식과 대접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

제 우리 도서관인들도 문화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번 훈장 추서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 정부의 도서관 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목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도서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 건립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였고, 문화관광부는 2002년 발표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자율과 분권, 그리고 전문성 제고의 의미에서 도서관 정책을 담당했던 도서관박물관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여 이래저래 올해는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도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본격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도서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물론 금년에도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채 해를 넘기게 되었다. 그 외에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도서관인 김대중도서관이 개관하여 또 하나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이 탄생하기도 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실 설치사업이 마무리되고, 여러 도서관에 RFID 등 다양한 관련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술적 발전은 크게 향상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이용자 또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이는 등 기술도입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10대 뉴스에서 빠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부천시립도서관에서의 도서관 회원 정보 무단 유출 파문은 그 사건의 중요성과 함께 도서관계 내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두고 가벼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도서관들이 사회속에서의 위상을 재고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병영도서관이나 교도소 도서관 건립 운동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다만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들이 기존의 도서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일부 대학에서 대규모의 선진적 도서관이 건립되어 개관한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 시대에도 물리적 도서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 개방문제가 학생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대학도서관은 착실하게 지역사회 개방을 정착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된 국제활동,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부여 업무 시범 실시, 민간위탁 중인 목포시립도서관의 운영 위기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국회도서관과 함께 직원들의 도서관 운영 참여 기회 확대, 문헌정보학과의 대학교육협의회 평가에 대한 거부와 협상, 각종 서평지 출간 등도 후보에 들었던 사건이었다.

가는 세월 속에서 이와 같은 뉴스들을 되짚어 보는 의미는 혹시 그 속에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갈 지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올해의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지혜를 찾아낼 지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결국 그 사건을 소화해 내는 사람이나 집단의 능력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부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2004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 일들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일까? 딱따르려 볼 일이다. [■ 글 : 기획부장 이용훈, blackmt@hitel.net]

10 대 뉴스

MBC !느낌표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지난 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MBC TV 오락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가 올해 시민단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와 함께 전국 각지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주는 공익사업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개인들에게 참가 신청을 받아 무료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세워주는 야심찬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에는 이 도서관이 국민의 힘으로 지어져야 하고, 또 이 도서관을 통해 '문화의 시대'가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느낌표' 제작진은 '기적의 도서관'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 사업 홍보, 공익자금 조성 등을 담당하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도서관 건립 부지 물색과 선정, 건물 설계와 시공, 소프트웨어 앗하기 등의 실무 작업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 12개 지역(대구 달서, 충남 금산, 전남 순천, 강원 태백, 충북 청주, 제주 서귀포, 제주시, 경기 고양, 경남 진해, 울산 북구, 충북 제천, 인천 부평)을 선정하고 11월 10일 순천시에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개관했다. 12월 15일에는 제천 도서관이 개관하는 등 12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평양에도 건립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고, 일부 지역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선정 이후 전혀 건립이 추진되지 않는 등 일부 잡음도 있었다. 또한 12월 말로 이 프로젝트의 추동력이 되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가 폐지된다고 하여 향후 추진에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방송국과 국민운동은 12개 지역 모두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추가 건립에 불을 붙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는 9월 느낌표 PD와 MC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연초인 1월 6일 '2003학년도 초중등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독서 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학교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까지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독서교육 활성화에는 시·도교육청별 초·중·고교 중 총 48개교를 정책연구학교로 운영하는 방안과 초·중·고별 도서목록집 제작·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정보화를 위해 130개교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8개 교육청에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정보활용 교육을 지원하였다. 특히 1,259개교의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과 한국도서관기준 발표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수년간 목록위원회(위원장 김태수)를 통해 1983년 제정된 한국목록규칙 제3판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올 해 마무리짓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4판은 표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 편으로 지난 198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한국도서관기준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 개정작업을 한 결과, 올 해 말 드디어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발표하였다. 20여년 만에 새롭게 발표된 이번 기준은 그 동안 발전한 도서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의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국내 최초로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 운동 시작

민간단체인 북스타트한국위원회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정착된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4월 1일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아가에게 책을'이라는 구호 아래 중랑구 보건소를 방문한 1세 미만 아기들에게 영유아용 책 2권과 부모용 안내서, 아기 손수건과 스티커 등이 든 예쁜 가방을 나누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조사연구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이 운동의 성과가 우리나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9월에는 영국과 일본의 북스타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전국도서관대회에도 참석하여 도서관인들에게 이 운동의 가치와 방법, 성과를 전달해 주었다.

저작권법개정·시행,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입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2003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서관등이 도서등을 도서관간에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도서관 보상금 제도가 실시되어 도서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 등 미래 도서관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저작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아직 도서관등에서의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도서관들은 이 법 개정 내용과 도서관 보상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여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CCTV, RFID나 모바일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도입 활발, 그리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등이 불거져

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도입이 추진된 RFID 시스템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등을 비롯한 여러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또한 다양한 PDA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부 대학도서관 등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첨단기술이 이제 공공도서관에도 도입되어 우리 도서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RFID 시스템에 대해 미국에서 이 시스템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도 제기되고 있어 도서관의 주의를 촉구한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도서관에 설치되고 있는 열람실 내 CCTV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쟁이 2002년 전북대학교에 이어 한양대학교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서관 내 도난과 분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CCTV가 도입되고 있어 향후 도서관에서의 이 같은 기술 도입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소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산시립도서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본격 시작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산시립도서관이 올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1998년 한 권의 책을 지역주민 모두가 읽음으로써 결속력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미국 시애틀시립도서관이 기획하여 시작된 지역단위 독서운동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았던 것을, 한국도서관협회가 올해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시작한 사업이다.

서산시에서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라는 주제로 추진된 이번 사업에서 서산시민들은 창작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저)』을 읽고 저자강연회나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독서운동을 이끌었다.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산시는 내년에도 매년 두 차례씩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순천시도 자발적으로 11월 10일부터 이 운동을 전개하여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여 도서관이 지역 독서활동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故 박봉석 선생, 은관문화훈장 수상

국립도서관 부관장을 역임한 故 박봉석 선생이 올해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훈장은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박봉석 선생의 장남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故 박봉석 선생의 문화훈장 수상은 해방 이후 수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

서관인들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기획예산처는 올 해 9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지방문화 기반 시설의 건립 지원방식'을 내년부터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권역 중심으로 건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예산처의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부도 내년 예산 지원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지난 해 발표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도서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올 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개정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12월 말 그 개략적인 윤곽이 밝혀질 예정이다. 폐기기준 등은 이미 개정되어 도서관에서의 업무시 유연성이 커졌다. 한 편 새로 출범한 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내세우고 정부 및 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정책 방식과 조직의 개편도 검토되고 있어 도서관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직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도서관들의 새로운 인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자율성 또는 지방자치의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대통령도서관 제1호, 김대중도서관 개관

우리나라 제1호 대통령도서관인 '김대중도서관'이 11월 3일 개관하였다.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의 김대중도서관은 올해 초 김대중 대통령이 아태평화재단 건물 등 소유 재산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자료를 연세대학교에 기증함으로써 탄생했다.

김대중도서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소장했던 1만 6500여권의 장서, 외국 지도자들과 교환한 편지, 각종 사진, 재임시 일정, 회의 내용을 적은 대학노트 26권 분량의 친필메모, 연설문과 정책자료집, 기념품과 훈장, 노벨상, 인권상 메달 등 10만점이 넘는 물품이 전시되어있다.

이미 12개의 대통령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이번 김대중도서관의 건립은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퇴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료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